

# 백운규 "8월 전력공급 추가 확충, 문제없을 것"

### 7월 최대피크 9248만kW... 8월 1억73만kW까지 공급 '전력수급 자문 TF' 가동... 예비력 적정성 등 분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1일 8월 전력수급과 관련 "전력공급 능력이 추가로 167만kW 확충되고 681kW의 예비자원도 갖추고 있어 수급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8월 전력수급 전망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8월 전력수요는 지난 7월 최대피크인 9248만kW 수준이거나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수급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29일부터 한울2호

기가 재가동됐고 정비 중이던 부산 복합, 호남1호기 등이 추가 가동돼 이번 주에만 117만kW가 확충된다"며 "8월 중순까지 인천복합 3·4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 8월 공급능력은 최대 1억 73만kW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남은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수급 자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기로 했다. TF는 최신 기온 반영에 따른 주별 전력수요 업데이트, 예비력 적정성에



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전력유관기관에 8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조치들을 당부했다. 우선 전력거래소에 한전과 협업체 냉방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매일의 전력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수원과 발전사에는 정비 중인 발전기들이 예정대로 적기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

라고 주문했다. 한편에는 아파트 정전 발생시 전기안전공사와 즉시 출동해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에너지공단에는 수급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손 놓고 있다고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위기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늘어날 계획"이라며 "6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여름철 수급상황에 가동하는 것과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지역본부 후견인 교육·간담회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31일 농협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1대1맞춤농업 교육생 192명(이민여성 103명, 여성농업인 89명)을 대상 후견인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교육의 효과 증대를 위한 후견인 능력 배양과 소통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 후견인들의 교육 사례발표와 마케팅 전문가 강경오 강사를 초청, SNS를 이용한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기법을 배우고 조진호 강사를 통해 교육생 간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완주군 봉동읍에서 딸기 당근 양파 등의 1대1 농업교육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이영순(60)씨는 "이민여성들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잘 따라주고 점차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말했다.

또한, 교육생 누엔띠땀(베트남)은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농사짓는 게 더 행복하고 딸기농사를 지으면 소득도 오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행복웃음을 지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지방우정청, 폭염기 우편물 배달지원 실시

### 집배원 오후 시간대 휴게시간 추가 부여·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 등 폭염대책 마련 시행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지난 30일부터 한달여간 전주시 완산구 평화주공그린2차아파트 등 1,329세대를 대상, 우정청 및 전주우체국 내근직원들을 통한 우편물 배달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배원들의 온열 질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직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우정청, 전주우체국, 우정노조 및 공무원노조 책임직 과 내근직원들이 현장 배달 업무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취지로 실시된다.



우편물 배달에 참여한 김성철 청장은 "얼마전에도 초소형 전기차를 통한 배달 체험을 해보았지만, 폭염 한가운데서 배달을 하니 요즘 현장 집배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

장의 애환과 고생을 함께 느끼고 대책을 마련,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은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오후시간대 휴게시간 추가 부여(1시간~2시간), 시원한 장소·소속 우체국 및 지자체가 운영 하는 무더위 쉼터 등에서 휴식 권장, 온열 질환 예방용품 보급, 현장 강령 등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익산군산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축원사업으로 급부상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일선 축협이 발 벗고 나섰다. 전북 익산과 군산의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서충근)은 지난 30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축산단체대표, 건축사협회 등을 초빙, 관내 조합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에서(농림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제작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과 오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에 대한 교육으로 익산군산축협의 주최로 지난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장에는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300여 축산농가가 참석, 교육을 마친 후에도 1시간 이상 적법화와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농가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오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과 관련,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군산축협은 이미 지난 2017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과 5일간 280여 농가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했고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사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선정 앞장

### 전국 최상위권의 예산 배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간 협업을 촉진,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예산을 배정 받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섰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동사업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설립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6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으로 조합당 1억 원 한도의 공동분야(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등)와 1억원 한도의 공동장비를 지원하며 지원한도(정부 보조 비율)는 공동분야 1억원(80%), 공동장비 1억원(70%)이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사전에도 '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조합 운영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신청'까지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에서 1~4차 신청기간(18년 2~5월) 등

안 총468개 조합(국비 345억5100만원)이 사업을 신청하고 이중 지방청별 현장평가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총290개 조합(국비 109억5900만원)이 지원 조합으로 선정된 가운데, 전북지역은 27개 조합(1.18백만원)\*이 선정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전북지역 예산배정은 전북중기청이 17개 시도 중 2번째, 12개 지방청 중 4번째, 2급 지방청중 1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북중기청은 연초부터 지역 내 다수 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신청해끔 자체 맞춤형 사업 설명회를 하고, 분부(소상공인지원 과)에도 전북지역 예산배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북중기청은 2013년 동사업이 시작된 이래 금년까지 전북지역 258개 조합(국비 139억3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전국 선정 조합 지원(2,082개 조합, 국비 951억4100만원) 대비 높은 비중(조합 12.4%, 국비 14.0%)을 차지 중이며, 이미 여러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공동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영태 기자

## 7월 도내 제조업 업황 하락

### 한국은행 전북본부 440개 업체 대상조사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31일 전북지역 44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61-60)는 전월보다 1p 하락했고, 8월 업황전망 BSI(64-65)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월 전북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61-60)는 전월보다 2p 하락했으며, 8월 업황전망 BSI(64-65)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한 것으로 31일 조사 내용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http://www.bk.or.kr>) 지역본부-전북본부로 접속)과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이강일, 조사역 이영희 Tel:250-4082, 4088, E-mail: jrbnk@bk.or.kr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폭염 피해 줄여라"... 농협, 전국 158개 시·군지부 긴급회의

농협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158개 시·군 지부가 참여하는 '폭염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폭염 피해 현황을 살피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314만8233마리다. 닭이 295만3657마리로 가장 많이 폐사했다. 오리 15만6118마리, 메추리 2만 5000마리, 돼지 1만2958마리, 관상

조 500마리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농작물 햇볕 데임(일소)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사과·포도·복숭아·자두 등 과수밭 145.7ha(헥타르·1ha=1만㎡)에서 과수 잎이 마르거나 열매가 강한 햇살에 오래 노출돼 표피가 변색하고 썩었다. 인삼밭 11.9ha까지 합하면 농작물 총 피해 면적은 157.6ha에 이른다. 축구장(0.73ha 기준)의 216개 크기와 맞먹는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보험금 기준)을 163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영태 기자



#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준법감사인 심의필·제 2018-다-37호 (심의일자: 2018. 1. 30 현재)